

# 제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

## 고3 인문 유형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질문거리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유전자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압도적이다. (중략)

유전자 가설의 핵심은 인간 본성을 형성하는 형질들은 인간 종이 진화해 온 기간만큼 적응을 거쳐 왔고, 그 결과 유전자들은 그 형질들의 발달 성향을 지닌 운반체 집단을 통해 퍼진다는 명제이다. 적응이란 간단히 말해, 한 개체가 형질을 드러내지 않을 때보다 드러냈을 때 다음 세대에 그의 유전자를 발현시킬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본 개체들의 차등적 이점을 ‘유전자 적합성’이라고 한다. 유전자 적합성은 개체의 생존 능력 강화, 개체의 번식 능력 강화, 공통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 및 번식 능력 강화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만일 어떤 유전자를 소유한 개체에게 특정 형질이 발현된다고 예정되어 있다면, 즉 그 형질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반응을 낳고 다시 우월한 적합성을 수반한다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발현될 것이다. 자연선택이 무수한 세대 동안 계속된다면, 적합한 유전자는 집단 전체에 퍼질 것이고 그 형질은 종의 특징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회생물학자, 인류학자, 기타 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 본성이 자연선택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중략)

인간의 정신은 경험을 통해 선과 점으로 뒤엉킨 그림들이 그려지는 백지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 대안 중에 어떤 특정한 대안에 먼저 다가가서 본능적으로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고, 유아에서 어른으로 자동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정해진 신축적인 계획표에 따라 육체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는, 주변 환경을 빈틈없이 경계하는 탐색자, 즉 자치적 의사 결정 기구로 기술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오랫동안 해 온 선택의 축적, 그것들의 기억, 앞으로 해야 할 선택에 대한 심사숙고, 각인된 감정들의 재경험, 이 모든 것이 정신을 구성한다. 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그를 다른 인간과 구별해 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결정에 따라붙은 규칙들은 모든 개인이 내린 결정들을 폭넓게 중첩시키고, 그리하여 인간 본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에 충분하고 강력한 수렴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빈틈이 없다.

(나) 우리는 응당 최고선의 촉진을 추구해야 한다. (최고선은 그러므로 역시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또한 이 연관의 근거, 곧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를 함유할, 자연과는 구별되는 전체 자연의 원인의 현존이 요청된다. (...)

도덕적 마음씨에 적합한 인과성을 갖는, 자연의 최상원인이 전제되는 한에서만, 이 세계에서 최고선은 가능하다. 무릇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자는 예지자(이성적 존재자)요, 이 법칙 표상에 따르는 그런 존재자의 원인성은 그 존재자의 의지다. (...) 이렇게 해서 도덕법칙은 순수 실천이성의 객관이자 궁극 목적인 최고선의 개념을 통해 종교에, 다시 말해 모든 의무들을 신의 명령들로 인식하는 데에 이른다.

(도덕 법칙은 의무들을 곧) 남의 의지의 제재(制裁), 다시 말해 임의적인, 그 자신 우연적인 지령들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 자신의 본질적인 법칙들로 인식하는 데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법칙들은 최고존재자의 명령들로 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도덕적으로 완전한(성스럽고 선량한), 동시에 전능한 의지에 의해서만 최고선을 희망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의지에 합치함으로써 최고선에 이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로렌스 콜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어린아이들은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받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른들은 많은 행위들이 비록 그것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잘못이며, 또 많은 행위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콜버그는 인간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연속적인 단계를 통하여 도덕적 추론을 발전시켜 간다고 주장한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	단계	도덕 판단의 특성
인습 이전	1단계 처벌과 복종	행동의 결과에 근거하여 행동 처벌을 회피하고자 권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2단계 개인주의, 상호작용	자신과 타인의 욕구 충족,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고하여 행동
인습 수준	3단계 대인관계 조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동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민감하게 반응
	4단계 사회질서 유지	사회 질서, 법, 사회적 의무를 중심으로 행동
인습 이후	5단계 사회 계약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및 가치 존중을 기준으로 사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중시하며 집단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6단계 보편적 윤리 원칙	모든 인간 및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지향,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나 양심에 따라 행동

(라) 하인츠(Heinz)라는 사람은 특수한 종류의 암을 앓아 거의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사러 갔다. 그 부인의 병을 치료하는데는 오직 한 가지 약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느 약사가 최근에 발명한 것이다. 그 약의 원가는 200달러 정도인데, 약사는 약값으로 2,000달러를 요구했다. 하인츠는 돈을 구하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 다녔으나 약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1,000 달러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하인츠는 그 약사에게 가서 자기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약을 1,000 달러를 받고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라도 주면 다음에 그 돈을 갚겠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약사는 하인츠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절망에 빠진 하인츠는 결국 그날 밤 약사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그 약을 훔쳤다.

(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위한 연대의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중략)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거나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실제로 보여준다. 가령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연구하여 교육하여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확신하려 한 민족문화수호운동이나 일제의 강제합병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성원의 외교활동 역시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협을 무릅쓴 택시운전자였다. (중략) 대한민국이 어떤 구성원에게 국방의 의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그 구성원을 소외시키지 않고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가에 헌신할 최소한의 전제조건도 충족시키지 않고 헌신할 것만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고단8059 병역법위반 판결

<문제 1> ‘인간행동의 기원’ 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의 관점 을 비교하시오. (400-500자)

<문제 2> (다)를 이용하여 (라)의 ‘하인츠’ 의 행동을 분석하시오. (500-600자)

<문제 3> (마)의 판결문이 시사하는 바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도덕성 발전과정’ 을 논하시오. (600-800자)